

우리의 진실한 정황, 그리고 우리는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무고(無辜)하게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 신앙의 자유가 짓밟히고, 인권이 짓밟히고 있다는 것만 말하면 된다. 이것은 그들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고, 곧바로 당신을 지지하며 동정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죽한 것이 아닌가? 당신이 기어코 그로 하여금 그렇게 높은 이치를 알게 해서는 뭘 하는가? 이런 정도로 알면 세상 사람들은法輪功(파룬궁)은 박해를 받은 것이고 또 박해를 가하는 자들은 것처럼 사악하다고 말할 것인데 이러면 죽한 것이 아닌가? 물론 당신은 그가 대법제자로 되기를 바란 것이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구세력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렵다. 특수한 사람은 사부가 모두 책임질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런 마음이 없고 구세력도 막아서고 있다. 우리 현재의 첫째 임무는 그들에게 진상을 알도록 하는 것이다. 특별히 좋은 그런 사람을 당신이 만날 수 있는데, 당신이 얼마간 높게 말해도 그가 모두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에게 말하도록 하라. 그건 상관없으며 그런 사람은 문제가 없다. 특히 어떤 정부 관리들에게 당신이 이런 것을 말한다면 그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 머릿속에는 온통 정치뿐이므로 전혀 믿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그를 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를 아래로 한번 밀어버린

다. 왜냐하면 그는 우주를 만든 천법(天法)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그것들 구세력은 책을 희귀할 정도로 적게 만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이때부터 법을 찾고 그를 존경하고 이 법의 소중함을 알게 하려고 했다. 그것들은 당초에 이런 구실로 이 일을 한 것이다.

제자: 저희 지역의 어떤 동수들은 아직도 정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타 방면의 이해도 그리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그들이 제고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까?

사부: 억지로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사람이 수련하고 수련하지 않고는 모두 자신에게 달렸다. 우리는 단지 선(善)을 권할 뿐이며, 또한 단지 되도록 그들을 일깨워 주고, 그들에게 알려주며 이치를 명백하게 알려줄 뿐이다. 강제적으로 해선 안 된다. 똑똑히 말했다면 어찌면 좋아질 수도 있는데, 아마 그는 집착하는 마음이 있을 것이다.

제자: 대법 일을 하는 중에서 어떤 책임자는 일을 잘하기 위해 진실한 말을 하지 않고 사람의 수단으로 합니다. 이는 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사심(私心)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욱 깊은 목적이 있는 것입니까?

사부: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 중에 좀 특수한 사람이 한둘 있다. 당신들에게 알려주겠다. 사부 역시 당신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 나는 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더 지켜보려고 한다. (박수) 된다면 내가 당신을 책임질 것이므로 당신들 자신에 달렸다. 그럼 기타 사람들에게 대해 말한다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누가 법을 파괴하려고 한다거나, 혹은 누가 다른 무엇을 하려고 한다면 이는 모두 불가능하다. 책임자 그 역시 수련하는 사람이다. 그도 사람 마음이 표현되어 나오게 마련이다. 이는 분명하다. 그들을 너무 높게 생각하지 말라. 하지만 그는 또 책임자이므로 그가 한 일은 또 일정한 영향이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문제를 보았다면 그들에게 지적해 주어야 한다. 만약 의견을 듣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불학회(佛學會)에 반영하도록 하라.

제자: 제자는 빗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정법의 형식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까?

사부: 대법을 당신 개인적인 일에 사용하려고 한다면, 내가 생각하건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다. 대법 제자로서 당신이 정말로 잘 할 수 있을 때면, 내 생각에 그 시끄러움도 당신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다. 당신이 법에 입각해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

게 하지 않았다면 이번에 정말로 그것을 구할 수 있었다. 그것은 이렇게 했고 따라서 내가 원했던 많은 것을 훼손시켰는바, 그것의 죄는 크다. 왜냐하면 그런 중생들이 그에 의해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제자: 당신께서는 미국은 과거의 명조(明朝)이며 명나라 사람들 대부분 수도(修道)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미국제자들이 미국정부를 향하여 진상을 똑똑히 알리는 상황에 결부하여 사부님께서 많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제자들은 바쁜 나머지 좀 마비된 것 같습니다. 마땅히 어떻게 해야만 천지를 뒤흔드는 그런 자비를 격발시킬 수…….

사부: 이렇게 말할 수 없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당신들은 반드시 이지적으로 해야 한다. 당신이 진상을 알리는 중에서 당신이 사람의 이치를 조금만 초월하면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다. 때문에 당신들이 진상을 알릴 때, 반드시 높게 말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들이 알고 있는 것은 신(神)이면 모두 마땅히 알아야 하는 것들이라 내가 당신들에게 말해 주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에게 말해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들은 속인들에게 말해 줄 수 없다. 당신들은 단지 우리가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과

신들이 법을 실증하는 과정에 하나의 상태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일부 세상 사람들이 선(善)하게 변할 수 있고, 더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구도되게 할 수 있으며 사악으로 하여금 악(惡)하게 되지 않게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이 아니다.

제자: 사부님께서 언제 저희에게 원시신(原始神)의 일을 말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들은 정법 중에서…….

사부: 내가 말한 구세력 역시 원시적 신이고 내가 말한 그러한 신들은 모두 원시적 신이다. 구세력에 대해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그것들은 모두 때 층차에서 제일 뛰어난 생명들인데 훼손되었다. 가장 능력 있는 것들이었는데 최종 그 구세력의 배치가 훼손시킨 것으로, 구세력이 목적을 이루는 데는 바로 이 부분을 훼손시키는 것을 대가로 했다. 이 우주는 방대하기로 무량무제(無量無際)하다. 우리는 그것을 가설(假設)하여 무량무제라고 하자. 구세력이 해체에 직면할 때 그것은 자구(自救)하려 할 것인데 그것은 신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 구세력의 배치는 그것이 생각해 낸 자구(自救)의 방법으로, 매우 세밀하게 배치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들의 이런 자구가 바로 자신을 훼손시킨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 만약 그것이 이렇

속인의 시끄러움은 곧 속인의 시끄러움일 따름이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물체는 변하지 않으나 신의 눈으로 보면 이 일체는 변하는 것이다. 당신들이 괴로워하면 사부 역시 당신들 때문에 괴로운데, 괴로운 것은 당신들이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법에서 높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고,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당신들은 또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참! 나무라는 것이 아니다. 사부가 말한 것은 모두 법이다.

제자: 줄곧 매우 곤혹스러운데, 인터넷을 돌파하는 도구를 연구하기 위해 대량의 인력, 물력을 투입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마땅히 일부 시간이 짧고 효율이 높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부: 이것은 인식이 같지 않은 것인데, 단지 인식이 같지 않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효율이 높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인터넷 돌파에 대해 말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라. 사악이 우리를 박해하고 있고 하늘마저 속이는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는데 그것을 폭로하지 않고서야 되겠는가? 우리는 바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의 사악한 본질을 보게 하고 사악이 한 짓을 보게 하며 진상을 보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

므로 우리는 그것을 돌파해야 한다. 대법제자들 속에는 많은 세계 일류의 과학자들이 있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타파할 능력이 있다. 그것들은 여태껏 명후이왕(明慧網) 봉쇄에 성공한 적이 없다!(열렬한 박수) 하지만 너무 많은 인력을 쓰지 않는 것도 옳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은가?

제자: 법정인간 시기에는 봉쇄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자들이 인간 세상에서 체현된 수단으로 실현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부: 우리가 이 봉쇄를 돌파하는 것은 곧 구세력의 배치를 부정하는 것이고 바로 이런 박해에 더해진 봉쇄를 승인하지 않는 것이다. 법정인간 시기에는 신불(神佛)이 확연히 드러나 사람이 듣지 않으려 해도 안 되는 것으로서 이는 다른 하나의 상태이다.

제자: 법정인간의 그 한 시각을 제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습니까?(웃음)

사부: 당신들의 수련한 정도가 다르고 수련한 상태가 다르기에, 어떤 수련생은 사전에 알 수 있고 어떤 수련생은 사전에 알 수 없다. 알고 모르고는 다 상관없다. 원만의

인권에 대해 말한다면 단지 인권뿐만이 아니라 또 동물 보호도 있다. 전생하는 데 인피(人皮)가 모자랐기 때문에 동물로 전생한 것도 굉장히 많고 또 식물로 전생한 것도 굉장히 많다! 이런 일은 모두 근대에 나타났으며 역시 정법 이런 일과 관련이 있다. 정법을 해야 하므로 모든 것은 대법을 위해 온 것이고 대법을 위해 생긴 것이며 대법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모두 긍정적인 작용을 일으키는 것만은 아니다. 바로 이렇게 된 일이다.

제자: 사부님께서서는 저희의 수련이 잘된 일면을 사람의 수련과정에서 격리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정법의 후기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이런 간격을 돌파해야 합니까?

사부: 최후의 요소는 또 모두 최대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것들의 간격은 매우 크다. 그것은 법정인간 시기에 사부의 강대한 정법지세(正法之勢)가 올 때라야만 전부 없앨 수 있다. 그런 홍세(洪勢)가 올 때에야 비로소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 와서 돌파하기만 하면 그것은 법정인간 시기가 시작된 것이다. 우리가 각도를 바꾸어 말한다면 당신들이 현재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당신들 동수(同修), 대법제자 서로 간에 손실을 적게 입게끔 하지만 아직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당

지 않다고 여기든 신이 보건대 모두 강도이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신이 그를 싸우게 하고, 영웅이 되게 하는가? 왜냐하면 신이 지상에서 어떤 일을 하려하고, 신이 인류에게 어떤 상태가 나타나게 하려면, 사람을 선택해서 해야 했기 때문이다. 선택된 사람은 신의 요구에 따라 한다. 비록 강제로 쟁탈하는 방식으로 하지만 신의 뜻대로 하기에 일이 끝나면 신은 그에게 영광을 준다. 무슨 영광인가? 그에게 사람마다 존경하고 우러러 보는 영웅이 되게 하고 대지를 통치하는 영광을 주는데 바로 이것이다.(웃음) 삼계 밖에서 사람을 보면 반대로 된 이치(反理)이나 사람 여기서 보면 바른 이치(正理)이다. 과거 사람의 이치는 바로 이리했다.

최근 이 시기에 정법을 해야 하기에 많은 왕이 모두 중국으로 전생했는데, 누구도 다시는 왕으로 불리지 못했다. 그럼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 많은 고층차의 부동한 층차의 생명이 모두 와 사람 여기로 전생했다. 이렇게 되어 각 민족의 인적(人的) 성분이 단번에 다 변하게 되었다.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하나? 이는 더욱 어려웠다. 때문에 구 세력은 아예 사람들 자신이 선택하게 하자, 민주를 하게 하자라고 했다. 이 민주를 하늘에서 본다면 실질적으로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작용한 것이다.

노정과 층차에 영향 주지 않으며 추호도 영향 끼치지 않는다. 그렇게 많은 것을 생각해서는 뭘 하는가? 법정인간의 일은 명백히 말한다면 당신들과 관계가 정말 그다지 크지 않다. 당신들은 정법시기의 대법제자들이다!(박수)

제자: 현재 어떤 제지는 병태(病態)가 나타났는데 아주 심각하여 거의 책을 읽지 못하고 연공하지 못하며 발정남도 하지 못합니다.

사부: 이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집착에 대해 말하자면 어떤 수련생은 드러내고, 어떤 수련생은 드러내지 않은 채 마음속에 담아두고 집착할 뿐 드러내지 않는 데, 나중에는 그도 풀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사악은 당신을 더욱더 이상하게 만드는데, 당신을 크게 곤두박질치게 할 것이며 당신으로 하여금 곤두박질치게 된 것을 평생 동안 잊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것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정도까지 집착하지 말라. 문제가 생기면 또 사부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어보는데 사실은 바로 당신들의 집착이 조성한 것이다. 사부가 책임질 것이다.

또 일부는 환청(幻聽)을 듣는 사람이 있다. 단지 당신에게 환청이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사실 당신은 진짜로 들은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들은 것은 사부가 아니다. 그것

들은 사부의 목소리로 위장할 수 있고, 형상마저도 사부의 형상으로 위장할 수 있으므로 당신의 집착을 이용하여 당신을 속인다. 대법제자인 당신은 법에서 깨달아야 한다. 당신은 정정당당한 대법제자이므로 이지적으로 법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 사고해야 한다. 또 어떤 수련생은 늘 공능에 대해 관심이 있다. 내가 일부 수련생들에게 일부 부동한 공간의 정법정황을 보게 했는데, 목적은 수련생들의 법을 실증하는 신심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어떤 수련생은 아직도 정확하게 대하지 못하고 법에서 수련하지 못하며, 심지어 일이 있으면 공능이 있는 수련생을 찾아가 봐 달라 하고, 본 것으로 어떻게 대법 일을 하고 어떻게 수련할 것인가 하는 지도(指導)로 삼는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누가 정법의 근본을 볼 수 있겠는가? 누가 대법을 수련하는 것을 똑똑히 말할 수 있겠는가? 층차가 극히 낮은 표현은 진상(真相)의 본질이 아니다. 법에서 수련하지 않고 법에 따라 하지 않는데 그래도 당신이 대법제자인가? 일단 생기면 그에게 어찌된 일인가를 봐 달라고 하는데 무엇을 본단 말인가? 누가 당신의 근본을 보아 낼 수 있는가? 당신의 아이도 그렇게는 안 할 것이다. 나는 말한 적이 있는데, 대법제자 내부적으로도 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만약 당신들의 진실한 수련 정황을

매우 깊다. 만약 법 공부를 늘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말하는 법을 이해하기가 아주 힘들 것이다. 우주 대법의 끝없는 오묘함은 낮은 층차에서 완전히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법은 각개 층차 중에서 펼쳐 보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동일한 층차 중에서도 넓게 펼쳐 보일 수 있고 구체적으로 펼쳐 보일 수 있는데, 모두 원용한 것이다.

제자: 자유, 민주, 인권은 마치 인간세상에서는 바른 것 같은데 이것도 구세력이 오늘의 정법을 위해 배치한 것입니까?

사부: 뒤의 한 마디는 맞게 말했지만 앞의 한 마디는 맞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의 이치가 아니다. 그러나 구세력이 배치한 것이다. 사람의 이치는 매우 간단한 것으로 사람의 이치는 정말로 민주(民主)가 아니다. 인류의 과거 그 많은 천만년의 역사는 모두 국왕의 통치였다. 제일 많을 때 지구상에는 만 개의 국가가 있었는데 만이 넘는 왕, 왕자, 공주, 왕후가 있었다. 이것도 과거의 문화이다. 때문에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병사로 천하를 정복하며, 강자(强者)가 영웅으로 되었다. 그러나 그 강자는 신의 눈으로는 그는 강도이다. 사람들이 그를 바르다고 여기든 바르

이라고 여깁니다.

사부: 우리 대법제자들은 이 문제에 좀 주의해야 한다. 그 밖에 이것은 그런 사람들이 속인 중에서 양성한 이른바 점잖아야 하고, 심태가 평온해야 하며, 침착해야 한다는 이런 관념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일을 너무 빨리 하는 것을 눈에 거슬린다고 하지 않는가? 사악이 박해하고 있고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평온한 것을 따질 기분이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될수록 예의범절에 좀 주의해야 한다. 우리 대법제자들은 중생을 구도하느라 바빠 뛰어다니는데 그들은 아직도 이것저것을 따진다. 어찌되었든지 대법제자들은 될수록 좀 더 그들에게 부합되게 하라! 사람들이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고 있고 우리는 위로 올라가고 있기에 그들을 구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제자: 사부님 안녕하십니까. 사부님께서 오전에 설법하실 때, 구세력이 소수의 수련생에게 나타난 일부 상태를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전법륜』 제6장 중에서 말씀하신 자심생마(自心生魔)가 아닙니까?

사부: 사실 그것들은 많은 방면에서 모두 교란하고 있다. 오전에 말한 것도 내가 『전법륜』을 원용(圓容)하는 것이었다. 『전법륜』은 개괄적으로 말한 것이지만 내포는

볼 수 있다면 그럼 또 무엇을 더 수련하겠는가? 당신에게 알려준다면 무엇이든 다 풀려버린다.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부동한 층차 중에는 부동한 표현형식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층차의 표현이든지 그 층차 중의 생명에게는 모두 진리이며, 층층이 모두 진리이다. 그러나 그것은 같은 일이 각각 다른 층차에서 표현된 것일 뿐이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위에서 드러나는데, 최고 층차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최종적인 근본이 드러난다. 당신이 어느 한 층차 중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대법제자의 근본적인 진상이고 정법의 진상이며 사부의 진상인가? 만일 당신이 오늘 대법제자와 사부의 근본적 진상, 대법의 진상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은 오늘 바로 이 무량한 우주의 주(主)이다! 당신이 모두 다 보았는가? 일체를 모두 한눈에 다 보았는가? 당신은 어찌 그렇게 얼떨떨할 수 있는가? 나는 여러 번 법에서 말한 적이 있는데, 당신들은 어찌하여 꼭 교란을 받으려하는가?(웃음)

제자: 만약 제자가 사업을 이용하여 眞(眞)·善(善)·忍(忍) 우주 법리를 말함으로써 은연중에 감화시키는 방식으로 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한다면…….

사부: 내 생각에 문제없으며 해도 된다.

제자: 다시는 전 한 시기처럼 직접 대법을 위해 헌신할 방법이 없게 되었습니다. 여쭙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도 정법시기 대법제자의 정의에 부합되니까?

사부: 당신은 어디에서든지 대법제자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다 잘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맞게 한 것이다.(웃음) 걱정하지 말라. 일부 곤두박질을 친 사람을 포함하여 당신이 빨리 일어서면 되는 것이다.

제자: 박사과정 학생으로서 과학연구를 잘하려면 전심 전력으로 몰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또 법 공부를 해야 하고 진상을 알려야 할 뿐만 아니라 연공도 해야 하므로 늘 시간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사부: 아직도 이 문제를 제기하는가. 사부는 이미 매우 많이 대답했다. 내 생각에 수련하는 사람으로서 당신들은 여전히 대법을 제일위(第一位)에 놓아야 한다. 그러나 당신은 또한 당신의 일에 책임져야 하며 되도록 잘해야 한다.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여전히 당신 자신이 배치해야 한다. 당신이 너무 바빠서 책을 볼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건 수련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완전히 자신의 일에만 정력을 쏟겠다고 한다면 당신은 바로 속

이미 원래의 그것들을 초월하기 때문인데, 원래 있던 시간, 공간 장애는 정법 중에 나에게서는 모두 실질적 의의가 없다.

제자: 사부님께서는 이미 연속 세 시간이나 말씀하셨습니다.(사부님 웃음) (제자들 박수)

사부: 나는 글자가 적은 쪽지를 골라서 대답하겠다.

제자: 이백(李白)은 위대한 시인이자 또한 수도(修道)하는 사람입니다. 그와 대법은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사부: 역사적 인물에 대해 당신들은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라. 아마 많은 사람이 당신들이었고 많은 사람이 나였을 수도 있다.(박수) 하지만 이 때문에 우쭐거리지 말라! 당신의 능력은 거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능력은 이번의 법이 준 것이다.(박수) 그것과 관계가 없다.

제자: 속인사회 중에서 특히 일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원래 대법의 眞(眞)·善(善)·忍(忍)에 대해 아무런 악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호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 방식에서 많은 대법제자들에 대해 반감을 가지게 되었는데, 너무 지나치고 선의(善意)가 부족한 탓



내가 느리면 그것들도 느리다. 때문에 내가 빨리 할수록 그 시간은 더 빨라진다. 그러나 사부로서 나는 빨리 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제때에 따라잡지 못하면 최후의 구원을 할 수 없다. 여러분은 우주가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인류도 지금 이 범위의 우주 역시 팽창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지금의 과학자들은 알고 있지 않은가? 팽창하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그러면 팽창의 최후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이 그 고무풍선을 보면, 불고, 불고, 불어, 극점에 도달할 때까지 불면 “팍!” 하고 터져 버린다.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미 이 한 점을 인식했고 그들도 이 팽창이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만약 그것을 따라잡지 못하면 이 일체, 적어도 정법을 끝내지 못한 곳은 모두 휩쓸려 없어질 것이다.

나는 반드시 빨리 해야만 한다. 원래 격차가 매우 컸고 불가사의할 만큼 멀었다. 지금 나는 한 가지 일이 나타날 때면 단번에 이미 그것의 일부분을 잡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이 물건이 100 몫이 있다고 하자. 이 물건이 나타나기만 하면 나는 곧 그것을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순식간에 해결해 버릴 수 있다. 그 한 단계까지 이르면 일체는 모두 최후의 최후에 이른 것이며, 내가 정법을 끝낸 것과 끝내지 않은 것은 모두 같게 된다. 왜냐하면 이 때면 모든 것이

인이다. 단지 이런 관계를 잘 처리하지 못할 따름이 아닌가? 그럼 당신은 잘 배치하도록 하라. 이는 아주 간단한 일이다. 사실 나는 『전법륜』 중에서 이미 아주 똑똑하게 말했다. 법 공부를 잘한다면 수련 중에서 절대 당신의 무엇에 영향 주지 않을 것이며, 도리어 일을 하거나 공부하는 데 효율이 훨씬 높을 것이다.

과학은 이미 이 일보까지 걸어왔고 인류도 과학을 벗어나지 못한다. 사회에서는 아직도 모든 방법을 대어 그것을 앞으로 추진하려 한다. 그러나 미래의 인류사회에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미래에는 과학이 없다. 하지만 어찌 되었든지 과학은 우주 중의 산물(產物)이므로 나는 여태껏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다. 나는 다만 그것이 인류에 부합되지 않으며 인류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말했을 뿐이다. 더욱이 장래의 사람들은 사람이 신으로 되는 길을 걷기 때문에 과학이란 이것을 인류에게 더욱 제공할 수 없다. 과학은 사실 신을 모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 물질을 변이시키고, 환경을 파괴하는 작용도 한다. 그것은 물질을 변이시킬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의 관념도 변이시키며, 지구 위의 많은 물질원소에도 변이가 일어나게 함으로써 우주에 대해서도 일정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래의 인류 여기에는 없을 것이다. 지금은 바로 이

러하다. 왜냐하면 법정인간 시기가 오기 전에 인류가 어떻게 혼란스럽기를 바라면 혼란스럽게 될 것이다. 당신이 하지 않는다고, 당신이 과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좋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당신이 했다면 한 것으로 했다고 해서 나쁘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정체(整體)적으로 이러하며 그것은 바로 이런 관계이다.

제자: 제자는 많은 대법 일에 바쁘다 보니 거의 아주 적게 연공하고 법공부도 보장하지 못하여 마음속으로 아주 괴롭습니다.

사부: 내 생각에는 그래도 시간을 내어 법 공부를 해야 한다. 당신이 대법을 번역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말이다. (웃음) 내 생각에 그것은 역시 법 공부를 하고 있는 것에 틀림없다.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법 공부를 해야 한다.

제자: 저는 법정인간 시기가 이미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고 여깁니다. 첨단 과학기술은 현대경제의 쇠퇴를 가져왔는데 이는 새로운 경제형식의 서막이 아닙니까? 대법제자가 회사를 차리면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웃음)

사부: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법정인간과

단지 원래의 어느 것도 잃지 않는 기초 위에서, 그것들의 세심한 배치를 통하여, 교묘하게 이 겁난에서 빠져 나가려고 했다. 그것은 안 된다. 이것이 바로 그것들이 얻으려는 목적이다. 나는 처음부터 그것들을 부정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비록 이 일체를 휘멸하러 한 것은 아니지만 도리어 이 일체를 휘멸하게 될 것이다.

제자: 시간이 또 빨라진 것을 뚜렷하게 느꼈습니다. 세인들을 향하여 진상을 알리는 방면에서…….

사부: 그렇다. 내가 몇 가지 문제를 해답하지 않았는데도 날이 벌써 어두워졌다.(웃음)

제자: 법 공부와 정법을 하는 일, 이 방면에서 더욱 시간이 긴박함을 느꼈습니다. 저희에게 더 구체적인 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부: 현재 시간은 바로 끊임없이 빨라지고 있다. 여러분에게 알려 주겠는데 내가 빨리 할수록 시간도 빨라진다. 왜냐하면 우주의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요소가 나의 정법과 시간을 한데 연결해 놓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 시간 역시 구 우주의 신이기 때문인데 그것들이 정법 중의 모든 것을 한데 연결해 놓았다. 내가 빠르면 그것들도 빠르고

사부:(웃음) 나는 지금 副元神(푸웬션)이 없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속인 중의 일체를 갖고 있어야 했다. 나중에 수련 중에서 연속으로 없애버렸으며, 나는 그들이 모두 원만에 이르도록 배치해 주었다. 만약 당신이 수련하여 원만에 이르고 아주 높이 수련한다면, 당신들의 그런 副元神(푸웬션)들도 모두 신이며 또한 어떤 것은 매우 높은 신이다. 때문에 그들도 모두 원만에 이르게 된다.

제자: 사부님께서 “구세력은 그것들이 원하는 목적을 얻으려 한다.”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부: 그것들이 얻으려는 목적은 바로 그것들이 우주를 정법 중에서 정법하지 않은 것과 같게 회복하려는 것으로 여전히 그것들의 원래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여전히 그것들의 산, 여전히 그것들의 물, 여전히 그것들의 신, 여전히 그것들의 상태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바로 그렇게 성취했기 때문에 그것들은 개변하려 하지 않는다. 그것들이 개변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한 표면형식을 좋게 변화시키려는 것이다. 깨끗하지 못한 옷 그것을 깨끗이 씻는다 해도 여전히 그 옛 옷인 것처럼, 말하자면 이런 뜻인데, 이 형용이 정확하지 않지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과학은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표현상으로도 아무런 충돌이 없고 그것의 발전에 대한 추진도 없다. 회사를 차리는 것을 말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일이라, 조건이 되면 하도록 하라.

제자: 저는 자신이 교란을 받는 문제가 존재하지 않고 오직 자신이 잘하지 못하는 문제만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인식이 맞습니까?

사부: 생각에는 문제가 없다. 교란이 없다면 그것은 매우 좋다. 자신이 잘하지 못한 것과 부족한 것을 의식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수련이다.

제자: 사부님께서 오전에 설법하신 내용은 매우 엄숙했습니다. 제자는 이미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사부: 나는 한 가지 몹시 좋지 못한 현상을 보았다. 어떤 제자가 휘멸될 텐데 바로 이처럼 엄숙하다. 때문에 내가 말했다. 그것이 미래에 발생한다고 말하자니, 현재 그것이 이미 싹 트기 시작했다. 바로 이러하다.

제자: 제자는, 사부님께서 인간세상에서의 법(法)의

체현이므로 사부님이 바로 법이며, 이는 법을 스승으로 모시는 한 층의 함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부: 내가 사람의 말로 명백하게 말하는데, 법은 내가 만든 것이다.(열렬한 박수) 홍대(洪大)한 궁체(穹體) 중에서, 오로지 당신이 우주 중의 한 물질(物)이라면, 무엇이든 다 포괄하며, 당신이 있든 없든, 공(空)이든, 무(無)이든, 당신이 물질(物)이기만 하면 당신은 바로 이 법이 만든 것이고, 당신은 바로 이 법이 개창해 놓은 생존환경 중에 있게 마련이다. 생명으로 말한다면 법은 표준이 있는 것이다. 법이 중생을 만들었으며 법은 또 갱신하는 중에서 중생으로 하여금 동화(同化)되게 하여 중생을 제도하고 있다. 대법제자들은 법을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주동적으로 법에 동화하는 것이다. 천체 중의 일체는 모두 안 되게 되었다. 지금 아직도 그것을 유보하고 있는 목적은 우주중생을 동화시켜 우주중생으로 하여금 구도 받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일찍이 모두 없어졌을 것이다. 대궁을 새로이 다시 만들 때, 법(法)으로 각 개 층차와 중생을 새로이 만들 수 있었지만 나는 이 방법을 채용하지 않았다. 나는 천체(天體) 중생들로 하여금 모두 이 법을 인식하게 하여 정념 중에서 법에 동화되게 했는데, 이는 가장 좋은 선으로 풀어내(善解)는 방식을

정 대법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자살한다면 대법을 위반한 것입니까?

사부: 자살은 옳지 않다. 당신이 정말로 매우 확고하다면, 당신이 죽음도 두렵지 않을 정도로 확고할 수 있다면 자살해서는 뭘 하겠는가? 당신의 확고한 일면을 보려고 하는데 자살한다면 당신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는가? 물론 대법제자로서 당신을 나는 전면적으로 가늠할 것이다. 단지 한 가지 일만 보아서는 안 되며 역사적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설령 자살 때문에 어떻게 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오점(污點)이 아닌가? 왜냐하면 사부는 법에서 자살은 모두 유죄(有罪)라고 말했기 때문인데 당신은 왜 법의 요구에 따라 하지 않는가?! 이는 일반적인 오성(悟性)에 그치는 것이 아닌데, 그렇지 않은가? 나는 말했다. 그 사악한 환경의 압력은 매우 크다. 하지만 반대로 말한다면 당신들은 무엇을 하러 왔는가? 당신들은 속인의 마난(魔難)을 감당하러 온 것인가? 당신들을 기다리는 것은 또 무엇인가?

제자: 사부님께서서는 副元神(푸웬션)이 없다고 하신 적이 있는데, 이전에는 사부님께 副元神(푸웬션)이 있었습니까? 만약 있었다면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사부: 그것이 바로 큰 장애다. 그 자신마저 이지적이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도 그것은 역시 헛되게 한 것과 같다. 발정념은 외면에 있는 것을 청리할 수는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청리하지 못한다.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는 그의 일념(一念)에서 오고, 그가 가지려 하는가, 가지려 하지 않는가에 달렸다. 이런 상황은 내가 보건대 마음속에 꼭 집착하는 매듭이 있다. 정말로 능력이 안 된다면 당신이 가서 도와 줄 수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없다. 방법을 찾아 그가 법리상에서 인식하게 하고 법 공부를 많이 하게 하라.

제자: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는 구세력의 배치를 부정해야 하며 법정인간 이전에 평화 시기를 열어 놓아 중국 사람들로 하여금 진상을 알게 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사부: 박해를 중지시켜야 한다는 이 생각은 잘못이 없다. 중국 사람들로 하여금 진상을 알게 하고 중생을 구하는 것은 대법제자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다. 평화 시기라는 이런 개념은 없지만, 그러나 사악은 갈수록 줄어들고 갈수록 시장이 없게 되며 응보도 대량으로 나타날 것이다.

제자: 대법제자가 감옥에서 차라리 생명을 포기할지언

채용한 것으로서 중생에 대해 자비를 베풀었다. 사전(史前)의 모든, 일체 생명은 모두 법이 만들어 낸 것으로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으며 모두가 그 속에 있다. 누가 만약 이 『전법륜』이 얼마나 높은 층차에 있는지를 말한다면 그는 곧 마(魔)의 말을 하는 것이다. 무량무계(無量無計)한 대궁, 무량무계한 천체 공간, 매 하나의 공간에는 모두 무량무계한 생명이 있는데, 모두 이 법이 만든 것임에 어떠한 생명도 법을 논평할 수 없다.(박수) 그런데 이 법의 일체는 모두 그 한 부의 『전법륜』에 전시되어 있다! 바로 이렇게 큰 법이다.

제자: 사부님께서 오전에 현재 구세력은 물질을 이용해 사부님의 가상을 만들어 대법제자의 법에 대한 정신정념(正信正念)을 동요시키려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구별해야 합니까?

사부: 일부러 구별할 필요는 없다. 현재 수련생들이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은 한정된 층차의 것이다. 구세력 역시 신으로서, 현재의 당신들에게 그것은 정말 천변만화(千變萬化)를 보여 줄 수 있다. 만약 수련생이 법을 스승으로 모시지 않고 마음을 이런 데에 쓴다면 그것은 일부러 당신에게 임의의 가상을 보여 줄 것이다. 나는 오늘 또 당

신들에게 명백하게 말한다. 당신들이 보는, 사람의 눈으로 보는 이것이 바로 사부의 주존(主尊)이며, 바로 여기에 있는 나다.(박수) 얼마나 높은 층차에 있는 ‘나’이든지, 그는 모두 나의 부동(不同)한 층차의 신체이다. 비록 내가 가장 낮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이는 내가 가장 낮은 곳으로 온 것이고, 나의 부동한 층차의 그런 신체가 모두 높은 곳에 있다 해도, 그것은 내가 그를 높은 곳에 있게 한 것이다. 나는 또 층층의 ‘나’를 모두 거두어 들여 한 몸으로 모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 여기에서, 우주 전반의 층층 층층이 모두 내가 되도록 전시해 보일 수 있다.(박수) 하지만 어떤 때에는 구세력이 교란하는데, 그것은 정말로 수련생이 빗나간 것을 보게 되면 당신에게 가상을 보여주어 당신의 시선을 막아버리며 당신으로 하여금 그 쪽의 사부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 사상적으로도 당신이 이쪽의 사부를 올바르게 믿지(正信) 못하게 한다. 그것은 하나의 가짜를 만들어 그 공간에서 오가거나 혹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당신을 미혹시킬 수 있다. 때문에 당신은 이러한 것들을 보지 말고 당신은 그것을 상관하지 말라. 법이 있고 사부가 있는데 아직도 부족하단 말인가?(박수)

법은 바로 내가 여기에서 당신들에게 말해 주는 것이 아닌가? 바로 이 입(입을 가리키심)인데, 보았는가? (뭇사

사부: 당신은 법으로 가늠하도록 하라. 때문에 나는 여러분에게 법 공부를 해야 하며, 법을 모든 일에서 가늠하는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당신이 매일 책을 들고 걸음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대조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법을 배웠으므로 당신은 마음으로 내가 대법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이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당신이 느끼기에 당신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했다면 문제가 없다. 설사 잘못을 했더라도 당신은 단지 그렇게 깊이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므로 당신의 큰 허물로 칠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신은 확실히 법에 따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이치가 아닌가?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핑계로 삼지 말아야 하는바, 법에 대해 책임지는 것은 자신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다.

제자: 현재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한 수련생이 구세력의 교란을 받아 마난(魔難)이 나타나면 다른 수련생들은 설령 그에게 집착이 있어도 수련생에 대한 박해를 허용하지 않으므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발정념을 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저의 문제는, 만약 그 수련생 자신이 제고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소용이 있습니까?

삼계로 전생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둘은 어떤 관계입니까?

사부: 사부는 또 법력(法力)은 끝이 없다는 말도 했다. 제6층 우주에서 직접 삼계로 전생되어 오는 데는 중간 과정이 있다. 이 과정은 바로 그가 아래의 여섯 층 우주를 통과하여 삼계에 도달한 것으로서 중간에 있는 모든 우주와 그 속에 있는 부동한 공간에 모두 그를 한 층씩 묻어 놓아야 했다. 다시 말해서 아래로 매 한 층을 내려갈 때마다 한 층의 표면 입자가 증가되었다. 천상(天上)에서 떨어져 내려오는 것 역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 이것과 한 걸음 한 걸음 내려왔다는 것은 단지 머물렀다는 것과 순간적으로 통과했다는 것의 형용일 뿐이다. 물론 신이 한 층 한 층 내려와 전생하는 의의와 목적은 완전히 다르다. 전생하려면 연(緣)을 맺어야 하는데 단지 그 한 층의 부모형제만이 아니라 많은 친구들과도 모두 연을 맺는다.

제자: 정법 일을 할 때 순조롭지 못한 일에 부딪히면 구세력의 교란인지 아니면 사부님께서 하지 말라고 점화(點化)하시는 것인지 똑똑히 분별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구분할 수 있습니까?

람 웃음, 박수) 모두 내가 말한 것이다. 누구도 나를 조종할 수 없으니 당신들은 안심하라. 내가 말하는 법이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는지 근원(根源)을 구세력은 전혀 보아내지 못한다. 내가 말해 낸 법의 기원(起源)이 어느 곳인지 볼 수 있는 생명이 없으며, 층층의 물질과 생명을 모두 관통한다 해도 기원을 찾아내지 못한다. 내가 당신들에게 법을 스승으로 모시라고 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당신들에게 이런 교란이 있을까 봐 그런 것이다. 당신들에게 법을 스승으로 모시라고 한 것은 이 법이 거기에 있으니 당신은 법에 따라하고, 정정당당하게 수련하라는 말이다. 만약 이 한 부의 법이 없다면 당신들이 생각해 보라. 당신들이 볼 수 있는 고만한 것들을 근거로 하여 당신이 수련할 수 있겠는가? 안 되지 않는가! 그럼 무엇 때문에 법의 요구에 따라 하지 않는가? 사실 현재 그러한 가짜들은 이미 전부 휩쓸리는 중에 있다.

제자: 극소수 해외 수련생이 중국대륙에 갔다가 붙잡혔는데 사부님의 요구에 따라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사부: 이렇게 말할 수 없다. 대법제자들은 모두 대법을 위해 할 수 있는 만큼 방법을 찾아 하고 있다. 수련생이 이렇게 하는 것이 틀리고 저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말할

수 없다. 매 사람은 모두 자신의 길을 걷고 있으며, 우리는 자신의 관념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를 말하지 말라.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은 서로 도와 방법을 찾아 해결하도록 하라.

제자: 저는 선(善)은 단지 표면적으로 상냥한 얼굴에서만 체현되는 것이 아니며 사악을 제지하는 것도 일종 선(善)의 체현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홍콩경찰, 독일경찰의 무리한 요구에 복종하지 않은 것은 일종의 선(善)이며 대법의 위덕을 체현한 것입니다.

사부: 사람에 대해서는 선해야 하고 사악한 생명은 제거해야 한다. 그 경찰을 놓고 말한다면 그는 모르는 것이고 그는 통제 당한 것이다. 잘 처리하지 못하여 그가 당신에게 악을 행하게 되면 그때는 그도 이지적이지 못하여 모순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당신들이 도리어 손실을 볼 수 있다. 때문에 이런 손실은 피해야 한다. 사람에게는 되도록 선하게 대하고, 저 쪽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숙하게 처리해야 한다. 만약 이 일이 대법에 영향이나 손상을 끼쳤다면 당신들도 엄숙하게 속인의 법을 이용하여 해결해야 한다. 사악은 확실히 독일경찰들에게 나쁜 것들을 많이 부어 넣었는데 당시 우리에게 아주 좋지 않게 대했다. 한 민족이

제자: 저희 지역의 한 수련생이 심각한 병태(病態)가 나타났는데 어떤 수련생이 그를 상대로 단체 발정념을 하자고 제의했지만 어떤 수련생은 사부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대법을 파괴하는 것입니까?

사부: 우리가 서로 좀 도와주는 이것은 대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그를 상대로 책을 읽고, 법을 읽으며, 발정념을 하고, 단체로 그를 에워싸고 하는 것은 작용을 일으킨다. 왜냐하면 근거리(近距離)에서는 여전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왜 근거리에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하는가? 왜냐하면 이 공간은 고층 최후의 요소에 의해 여러 겹으로 잘려 분리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정념이 강하면 이 차이를 제거할 수 있고, 당신이 아주 바르게 하면 그것이 막아내지 못한다. 막으면 그것이 법을 범(犯)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관계이다.

제자: 사부님께서서는 우주 대궁(太穹)의 중생들이 한 걸음 한 걸음씩 삼계로 들어왔다는 법을 말씀하셨고, 사부님께서서는 이전에 또 석가모니 부처는 제6층 우주에서 직접



전의 상황은 바로 이러하다. 하지만 공간 중에서 생명의 생존을 유지하고 있는 요소도 신이다. 이 기간에 그것은 속인의 신체를 지나다닐 수 있고 생명들은 그 속에 잠겨 있는 것과 같다. 마치 당신이 호흡하는 것처럼 당신이 호흡하면 들어가는 것이다. 입자와 입자의 간극(間隙) 사이에서 미시적인 생명은 마음대로 속인의 신체를 지나다니는데 그것은 부체(附體)가 아니다. 우주 그것은 바로 그러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았고, 저것을 보았다고 말하는데 사실 다수가 모두 부동한 공간의 중합(重合)이 조성한 가상(假相)이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으로 그 속에 들어가지는 않았으며 또한 정말로 사람의 이 입자 속으로 용해되어 들어가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과거에 수련한 그 副元神(푸웬션)은 그것이 원래 있었던 미시적인 경계 중, 가설된 범위 중에 있었을 뿐, 그것은 당신 신체의 진정한 입자 중으로 용해되어 들어가지 않았다. 용해되어 들어가면 그것은 떨어져 내려온 것으로 그것은 영원히 되돌아가지 못한다. 하늘에서 떨어져 내려온 생명은 과거에 하나도 돌아갈 수 없었다. 인류로 말하면 고대 그리스 성인(聖人) 소크라테스도 하늘에서 떨어져 내려온 사람은 한 사람도 돌아갈 수 없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는 본래 선지자였지만 사람들은 그를 철학자로 여겼다.

대법을 대함에 있어, 사악과 정의(正義) 앞에 서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내가 장차 그들의 장래를 어떻게 대해야 하겠는가? 그러나 이 일이 지난 뒤에 마땅히 제때에 그것을 처리하여 법률에 호소했어야 했다. 당신의 국가는 민주국가로서 대통령이 죄를 범해도 법정에 기소할 수 있는데, 국민이 선출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일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또 말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제자: 어떤 때 저는 사부님의 구도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이기적인 심리를 극복하고 표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사부: 그렇게 비판하지 말라. 개인의 습관이 다르면 민족의 습관도 다르다. 사는 지역이 다르면 문화배경도 다르므로 다른 습관이 생길 수 있고, 다른 문화권 속의 부정적인 일면이 다른 민족의 수련생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이것은 문제가 없다. 사부는 이런 것을 보지 않는다. 오로지 당신이 수련하기만 하면 당신은 인식할 수 있으며 천천히 무엇이든 모두 잘할 수 있다. 단번에 다 잘한다는 것은 실제적이 못 된다. 당신의 법 공부가 끊임없이 깊어짐에 따라 인식이 갈수록 좋아질 때면 당신은 잘하게 될 것이다.

제자: 저희가 어떻게 하면 미국정부에 진상을 더 잘 알릴 수 있습니까?

사부: 이러한 일들은 당신들도 줄곧 하고 있으며 당신들이 이전에 한 것도 아주 잘했다. 더 한다면 즉 더욱 심도 있게 면적을 좀 더 넓게 하도록 하라.

제자: 저는 매우 많은 동수들에게 메일을 한 통 보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일은 좋은 것이었지만 방식이 비교적 부정적이어서, 나중에 동수들이 더는 저와 교류하지 않습니다. 제가 잘못된 것입니까?

사부: 방식이 비교적 부정적임을 당신이 이미 인식했는데 그 때문에 그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받아들이지 않은 데는 그도 속인의 마음이 있기 때문인데, 어찌면 대법제자로서 쌍방이 모두 마땅히 정확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대법제자는 어떤 일을 대하든지 모두 마땅히 긍정적으로 대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좋지 않은 일면을 보지 말고 늘 다른 사람의 좋은 일면을 보아야 한다. 사실 당신들은 아는가. 내가 그 해에 당신들에게 대법을 전할 때, 강의 하는 중에 아래에서 많은 속인의 사상이 발출되었는데, 어떤 사람의 사상 반응은 아주 좋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이

다. 죄가 특별히 큰 사람은 지옥에 들어간 다음 직접 횡멸시켜 그 무간지옥(無間地獄)으로 보내는데 무생지문(無生之門)에 들어가면 영원히 다시 살아날 수 없다. 과거에는 바로 이러했다.

인류를 만들어 낸 후, 인류의 연극무대 위에도 신(神)이 나타났고, 수련과 바른 믿음(正信)도 따라서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본인 수련이 아니라 副元神(푸웬션) 수련이었다. 副元神(푸웬션)이 수련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삼계라는 이 가설(假設)된 범위에만 진입했을 뿐 삼계 속으로는 진정 진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엇 때문인가? 예컨대 방금 내가 말한 것처럼 어떤 생명은 인체로 진입했지만 사람 속으로는 진정 들어오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공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대법제자들의 수련이 잘된 그 한 면의 모든 공간은 내가 전부 봉폐해 놓았기 때문에 누구도 들어가지 못한다. 수련되지 않은 그 한 면은 누구나 다 지나다닐 수 있지만 호법(護法)과 사부가 지키고 있어 역시 지나다니지 못하게 한다. 물론, 나의 그 쪽은 어떤 요소도 지나다닐 수 없다. 사부의 여기 정황은, 나는 신체 가장 표면에 우주의 못 신과 중생, 많은 홍대한 궁체(穹體) 중의 일체 요소의 명(命)을 붙잡아 두었는데, 법정인간 시기가 아직 오기

고 만다. 이 구세력은, 우주를 갱신(更新)하고 중생을 구도하는 데 있어 가장 밀쳐버리기 어렵고, 자칫하면 방향을 잃게 하며, 진짜와 가짜의 구별을 어렵게 하는 가장 넘기 어려운 장애물과도 같은 것으로서, 새로운 궁체가 탄생할 무렵의 생사존망의 열쇠이자 갱신의 가장 큰 관(大關)이다. 그러나 이곳은 내가 당초에 선택한 곳이다. 왜냐하면 나는 우주에서 떨어져 내려온 생명들에게 돌아갈 기회가 있게 하고, 생명이 우주 중에서 원용불멸(圓容不滅)하는 기제(機制)의 한 부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래의 사람이 신으로 되는 길이 정말로 열렸다. 과거에, “아이고, 나는 죽어 하느님(上帝)을 만나러가는구나.”라고 말했다. 입으로는 하느님을 만나러 간다고 하지만 하느님이 당신을 만나주는가? 사실 『성경』 중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최후의 시각에 임박하여, 즉 대 심판 시기에야, 주(主)는 비로소 진정으로 천국에 올라갈 표준에 도달한 사람들을 데려가는 것이다. 지금은 모두 한 생 또 한 생을 계속 윤회하는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죄가 있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여 휩멸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의 죄를 없애버리는데, 고통을 감당하여 그의 죄를 없애버리고, 또 다시 돌아와 다시 윤회전생(輪迴轉生)한

런 것을 모두 보지 않았다. 나는 당신들의 좋은 그 일면을 보았기에 당신들을 구도할 수 있었다. 만약 내가 당신들의 좋지 못한 일면만 본다면 내가 어떻게 구도하겠는가? 볼수록 화가 날 텐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구도하겠는가?(박수) 그러므로 어떠한 정황 하에서든지, 속인의 행위에 이끌리지 말고 속인의 마음에 이끌리지 말며 또한 세상의 정(情)에도 이끌리지 말아야 한다. 남들의 좋은 점을 많이 보고 남들의 좋지 않은 점을 적게 보라.

제자: 저희가 단체로 법 공부를 하고 교류할 때, 저는 무슨 할 말이 없으며 무슨 관점도 없습니다. 이런 것이 맞습니까?

사부: 아마 상태가 조성한 것 같다. 당신이 말하고 싶지 않으면 말하지 말라. 당신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말하지 않는 것을 미안해하는 것 같은데 당신이 말하고 싶지 않으면 말하지 말라. 괜찮다. 당신이 말하고 싶으면 그것 역시 당연한 것으로 당신은 말하도록 하라. 그러나 말하기 싫어하는 습관 때문에 당신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제자: 사부님께서서는 인류 이 한 층은 장래 우주 중에서

매우 큰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중요한 역할인지 사부님께서 해석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부: 미래에 인류 이곳은 하나의 극히 특수한 곳이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길든지 간에, 중생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며 정법 이 일을 위해 인류를 만들었고 이 한 층의 사람을 만들었다. 이전에는 인류가 없었다. 지구의 이 위치에 예전에도 별(星球)이 있었는데, 그 별과 지금의 지구는 구조가 같지 않다. 이 지구는 사람의 생존을 위해 것처럼 많은 물이며, 식물이며, 동물들을 만들었다. 예전에 여기에 있었던 별 위의 생물과 환경은 더욱 열악했으며 그곳의 제일 고급적인 생명은 모두 외계인과 같은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이곳에는 사람이 없었다. 이곳에서 별이 얼마나 많이 휘멸되고 얼마나 많이 만들어졌는지에 관계없이 모두 사람이 없었다. 사람이 존재한 역사는 단지 두 개 별밖에 없는데, 저번 지구와 이번 지구이다. 저번의 지구는 이번에 법을 전하기 위해 구세력이 배치한 실험 과정이었었고 이번이 정말로 한 것이며 정법을 시작하는 이 과정은 구세력이 배치한 것이다.

나는 오기 전부터 구세력이 이 일체를 배치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배치 중에서 나는 내가 갖고자 하는 것들

을 선택했다. 그러나 많은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구세력은 개변하려 하지 않았다. 비록 이렇게 되어 정해진 것일 지라도 이번 정법이 시작되자 구세력은 사전(史前)에 정한 것의 백분의 팔십 이상을 고쳤다. 나는, 그것들이 나를 이용해 사욕을 만족시키고 중생과 궁체(穹體)의 안위(安危)를 무시하는 이런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내가 왜 그것들을 제거하는가 하는 한 원인이다. 다른 한 가지 원인은 나는 이 일체가 모두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법을 바로잡는 것이다. 그 속 생명의 지혜가 아무리 크다 해도 해체되는 운명을 바꿀 수 없다. 오로지 근본적으로 개변해야만 구제될 수 있다. 하지만 구세력은 이렇게 하는 일체를 다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해낼 수 있었다.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구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체 장애를 타파하고 만난(萬難)을 물리쳐야 했다. 이런 과정 중에서 부동한 층차의 중생들은 모두 내가 한 일체가 진정으로 일체를 구도하는 희망임을 보았다. 지금까지 해오면서, 중생들도 구세력이 하려고 하는 일체는 모두 풀 수 없고 뿌리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보았다.

정법 중에서 더 위로 올라가면 구세력은 없어지고, 구세력의 배치와 관련 있는 일체의 요소는 없어져 흐지부지되